

새로운 방향 설정 : 실천적인 응답을 위하여

누구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할 수 있다. 한국교회에 대한 문제라면 더더욱 그렇다. 해결 방법에 대한 견해 역시 다양하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에 대한 염려와 새로운 방안들을 제시하는 책들이 그렇게도 많이 쏟아져 나온다. 책이름만 보아도 년도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강한 인상을 풍긴다. “한국기독교의 위기와 전환”(쿰란출판사, 2000), “한국교회의 문제점과 극복방안”(이컴비즈넷, 2006) 등은 점잖은 표현이다. “추락하는 한국교회”(인물과 사상사, 2007), “길 잃은 한국교회”(밴드 오브 퓨리탄스, 2012), “어쩔까나 한국교회”(신앙과지성사, 2014), “일그러진 한국교회의 얼굴”(IVP, 2014) 등 제목부터가 강렬해 지더니 이제는 무너진 성전을 슬퍼하는 예레미야에게까지 물어야 한다는 “한국교회, 예레미야에게 길을 묻다”(아바서원, 2013)에 이어 3.1운동을 조망하고 통일한국을 꿈꾸는 내용이지만 “한국교회여 다시 일어나라”(새물결플러스, 2015)라는 제목만 보면 정말 한국교회는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그 분위기를 짐작하게 된다.

지난 세기말인 1998년 국제로잔위원회는 21세기에 나타날 가장 심각한 선교의 문제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Nominal Christian)으로 지적하였다.¹⁾ 아니나 다를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 중 일부가 교회를 떠나서 저지르고 있는 작태는 급기야 비기독교인(Non Christian)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반기독교인(Anti-Christian)도 모자라 소위 타도기독교인(TADO-Christian)을 상대하여야 할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개인적으로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는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Purposeless Church), 그리고 지도자들의 ‘정체성 위기’(Identity Crisis)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의 당면한 과제들이 점점 더 다양해 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이 지적되고, 아무리 좋은 방안이 제시되어도 ‘신학이 교회의 학문’이요, 또 “몰트 만(J. Moltmann)이 교회가 사도들의 기억이나 그들의 교훈에 충실한 것만으로 사도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책임을 수행할 때에 사도적일 수 있다”²⁾는 지적처럼 성경적(Biblical)이고, 역사적(Historical)인 근거가 아무리 분명해도 실천적(Practical)인 신학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미 복음주의선교신학회와 한국선교신학회는 공동학술대회

1) 국제로잔위원회 보고서(Ed. Heather wraight, *They Call Themselves Christian*. London : Christian Research & The Lausanne Committee for World Evangelization, 1999)를 참고하라.

2) 서정운 외, 『신학함의 첫걸음』 (서울 : 예영커뮤니케이션, 2002), 223-24쪽.

(2011년 6월 11일, 온양제일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 성장의 정체와 쇠퇴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지만³⁾ 아무리 중요한 내용들이 지적되고,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용하고 실천할 수 없다면 탁상공론에 불과하며 사변적인 것이 되고 만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방안과 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의 구조와 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 500년 전의 종교개혁은 1500여 년 동안 구습에 젖어있는 교회의 체제와 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독교와 교회성장의 근간을 이루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개혁자들은 천주교의 체제와 구조의 갱신을 위하여 직접적인 방안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을 뿐이다. 마르틴 루터(M. Luther)만하더라도 교회의 체제를 뒤엎는다거나 교황에 대한 반대운동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교회의 기본적인 질서와 본질회복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을 뿐이었다.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말씀(sola scriptura), 만인제사장(sola Gratia)이라는 그의 삼대개혁 정신은 애초부터 교회 구조적인 변화나 체제의 혁신이 아니라 근본적인 신앙의 본질 회복에 중점을 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는 말이다. 오늘의 개신교회가 구교와는 다른 개혁교회로서의 자리를 잡게 된 것도 사실은 루터의 이러한 주장에 따른 실천적인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되어 오늘의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한국교회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고 학자들의 학문적인 입장이나 개혁과 갱신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500년 전 루터가 강조한 그의 3대 정신을 실제적으로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필자의 실제적인 목회현장사례를 중심으로 확인하고, 이를 일반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교회의 당면 문제 : 긍정적 방안 검토

지난 130년 동안의 한국교회는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해왔다. 비록 타종교의 종교인 숫자에 비하면 비교적 초라한 교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애국충군하는 교회, 3.1운동을 주도하는 교회, 독립운동과 애국운동, 가난 퇴치와 경제 부흥, 민주 운동과 정치 질서 회복 등으로 온 국민들의 칭송과 공경을 받는 교회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지도자의 세습이나 교회 재산의 사유화, 사회적으로 교회에 대한 신뢰도 추락이나 정치적인 성향에 따른 교회 분열과 상호비방 등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도 시급한 상황인데, 급기야 ① 교회를 위한 헌신세대들의 은퇴와 ② 30-40대 성도들의 사라짐으로 인한 다음 세대의 급격한 감소 현상과 함께 ③ 그나마 남아 있는 교인들의 침묵상태 등으로 한국 교회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게다가 시대적인 조류마저 단단히 한 몫을 하고 있다. 탈 규범주의, 탈 이성주의, 탈 권위주의라는 옷을 입은 Post-Modernism과 그 이후의 Neo-post Modernism이라 불리는 사조의 심각성이 더 큰 문제이다. 숨어버린 30-40대 성도들의 증발과는 또 다른 성격이 바로

3) 한국복음부선교학회와 한국선교신학회 공동주최, 「제3차 공동학술대회」(온양제일교회, 2011. 6. 11), 주제: “한국교회 정체원인과 대책” 보고서 참조.

젊은이들의 ① 무관심, ② 무참여, ③ 무반응으로 일관되는 현상인데 문제는 이에 대한 대처능력마저 전무하다는 것이다. 단순한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보아 넘겨 버릴 수가 없다. 대학생들을 지도하는 학원선교사들의 한결같은 하소연이 과거가 그렇다는 것이다. 한때의 청년들은 때로 불평을 하기도 하고 대들기도 하며 따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불만을 가지거나 맞짱을 들며 따지는 청년들과는 때로 다투기도 하고 논쟁을 하다가도 타이르고 설득할 기회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럴 기회도 없다는 것이다. 순종도 잘하고 대답도 잘하며 적극적인 것처럼 보이는 청년이 이렇다 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다고 한다. 마음에 들면 순수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협조적이었다가도 마음에 들지 않거나 기분이 상하면 아무 기별도 없이 그냥 없어져 버린다. 거부감이 생겨도 묻거나 따지는 일도 없다. 그냥 조용히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아예 설득하거나 이해를 시킬 틈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일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마음이 상하면 아무리 지도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반응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어야 한다. 매사에 장단점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이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방향을 바꾸려한다거나 뒤집어 놓으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물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 그러나 좋은 점을 개발하고 장려함으로 부정적인 요소들을 덮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새로운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언제든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요소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같아있기만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구태여 개혁이나 갱신이라는 명목으로 약점들을 꼭 들추어내어 비난하기 보다는 장점들도 함께 살려 잃어버린 용기를 회복시켜주고, 칭찬으로 활력을 더하여 주는 것이 더 급한 일임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제시하고, 시정해야 할 점들을 지적해 준다고 하더라도 좌절하고 낙심한 젊은이들에게는 칭찬과 격려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필자는 이미 한국선교신학회와 한국복음주의 선교회가 함께 하는 '제3차 공동학술대회'에서 한국교회의 성장을 위한 다섯 가지의 과제를 제시한 적이 있다. 사회로부터의 신뢰 회복(교회의 문제), 명목상 그리스도인에 대한 대책(개인의 문제), 이웃을 향한 봉사과 책임(사회적인 문제), 북한 선교와 통일 시대의 준비(민족의 문제), 세계 선교를 위한 지도력 향상(세계선교의 문제) 등이었다.⁴⁾ 그 대안으로 제시된 내용으로는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교회, 복음의 공공성 회복, 교회의 구조와 체제 변화, 동반자 내지는 협력 선교를 통한 연합운동 등이었으나 사실 이것도 특별한 제안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모두가 다 지극히 본질적인 것이고 원칙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언제든지 교육적으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을 진취적인 방법이라고 하듯이 한국 교회도 많은 자랑거리와 강점들이 있다. 일찍이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경험을 가진 한국 교회이다. 백만 인파가 함께 모여 밤을 세워가며 기도하던 일이나, 군부대에서 수천 명에게 동시에 세례를 베푸는 진풍경은 한국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철저한 복음주의 신앙에서부터 민주화, 인권, 경제, 환경 살리기 운동까지 참여하는 다양한 신앙 경험을 가진 교회이며, 성경 읽기와 사경회 운동을 통

4) 「제3차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3-30쪽.

한 한국교회의 부흥운동도 ‘성장하므로 선교한 교회가 아니라 선교함으로 성장한 한국교회’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미래를 바라보며 교회의 개혁을 추진해 나아가야 하는 방향 제시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의 신장에 더욱 주력함으로 부정적인 요소들을 극복해 나가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종교개혁 정신의 반복적인 학습이나 중심 내용의 의미를 되새기는 이상으로 그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이론과 실천의 통전성 모색 : 루터 개혁의 삼대정신 안에서

학교 교육도 그렇겠지만 목회 현장에서 생기는 갈등은 학문이나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개혁과 변화의 요구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과제는 아는 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변화’에 대한 강의를 맡은 교수가 먼저 학생들에게 오늘의 주제는 ‘변화’라는 사실을 먼저 밝힌 후에 당장 수강생들에게 자리 이동을 요구하였을 때, 학생들은 오히려 술렁거리기만 할 뿐 움직이기를 싫어하더라는 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다. 전인교육을 이야기하며 ‘지정의(知情意)⁵⁾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지식과 지능을 중시하는 지능지수(IQ, Intelligence Quotient)나 감정이나 심성을 강조하는 감성지수(EQ, Emotional Quotient)에 대해서는 떠들썩하면서도 이를 아는 대로 느끼는 대로 실천하는 도덕지수(MQ, Moral Quotient)에 대해서는 대개 무관심한 편이다. 알고(머리), 깨달았다고(가슴) 한다면 반드시 행위(손과 발)가 뒤따라야 함에도 정직해야 한다는가 교통도덕을 준수하고 이웃과 사이 좋게 지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실천 여부이다.⁶⁾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 되는 비극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신학이 살아 있는 학문이 되고, 교회의 신학이 되기 위해서라도 ‘학문과 현장의 통전성’은 필연적이다.

흔히 종교개혁 이전의 중세교회를 비판하면서 당시의 신학교가 “바늘 끝에 몇 명의 천사가?”⁷⁾라는 논쟁에 빠져 있는 동안 교회는 타락하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오늘날의 개신교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도 따지고 보면 신학적인 논리나 선교적인 이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윤리적인 기준이나 도덕적인 상식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이를 제대로 실천하거나 적용하지 못하는 현장의 문제이다. 종말을 향하여 치닫는 지금, 개혁이라는 과제의 실천은 전략적으로도 시급한 때이다. 땅 끝과 끝 날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아니라 ‘몇 가지

-
- 5) ‘전인교육’이라는 일반교육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영혼의 능력 내지는 기능에 관하여 ‘知情意’라는 세 가지 차원을 설명한다.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을 할 수 있는 ‘지적 능력’,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양심의 기능’, 그리고 지적인 능력과 양심의 기능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선택, 결단, 추구에 이르는 ‘의지의 능력’을 강조한다.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서울 :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88), 42-43쪽.
- 6)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도 지필로 평가하는 도덕 시험은 만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도덕 평가는 지식이나 감성 평가가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는가의 여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손윤탁, 『선교교육과 성장목회』(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11), 30쪽.
- 7) 흔히 천주교의 공리공론에 비판하는 말로 인용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 나오는 “여러 명이 천사가 같은 장소에 있을 수 있는가?”라는 명제를 윌리엄 실링우드(William Chillingworth)가 “바늘 끝에는 천사가 몇 명이나 춤 출 수 있을까?”로 소개함으로 왜곡되어 전해진 것이라고 한다.

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눅 10:41-42) 이때인 만큼, 주님의 지상 명령에 근거한 선교전략의 원리⁸⁾를 따르던 많은 개혁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이다. 따라서 그의 3대 개혁의 정신을 어떻게 목회에 적용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마르틴 루터는 위텐베르그(Wittenberg) 대학에서 성서신학을 가르친 교수였다. 그는 성경을 자국어(독일어)로 가르쳤으며,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할지라도 완전히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성서 안에서만 참된 권위가 발견되는 것이라는 사상을 발전시켜 갔다.”⁹⁾ 그의 신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물론 새로운 혁신을 이루겠다는 의도는 아니었으나 전통이 범하고 있는 오류를 극복하고 성경의 권위를 통하여 참된 복음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분명한 생각은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라는 선언에 이르게 된 것이다. 물론 “루터는 성경주의자는 아니었다. 최우선적인 권위는 성경의 정경이 아니고 성경 속에서 찾아낸 복음이었으며, 복음이야말로 성경을 해석하는 표준이었다.”¹⁰⁾

루터의 칭의론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만족시켰다는 것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고 깨달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신앙(fides), 곧 신뢰(fiducia)가 된다. 물론 지적 기능과 정서적인 감화. 그리고 새로운 의지와 결단이 수반됨으로 참된 신뢰에 이르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오직 이와 같은 믿음으로만(sola fide)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응답이다. 이 신앙은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루터는 “신앙은 은혜의 말씀에 대한 수동적 반응”으로 보았다.¹¹⁾ “다시 거룩한 교회”로 회복하여야 할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 하고, 스스로의 죄를 깨달으며, 구원의 약속을 확신하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에 의한 은혜의 수동적인 반응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 그리고 계시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과 믿음으로 참여하는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이다.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성도들은 이 예식을 통하여 연합은 물론 지속적인 변화와¹²⁾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하는 예식이다.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봉사하기 위하여 제정된”¹³⁾ 기독교의 성례는 성경에 근거한 세

8) 일반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전략과는 달리 언제나 선교전략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선교 전략의 세 가지 요소는 ①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 ②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간, ③ ‘제사 삼기’라는 목표를 이야기하지만, 전략의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 ① 효율성, ② 적합성, ③ 도덕성의 원리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손윤탁, 『선교교육과 성장목회』, 23-25쪽을 참고하라.

9) Earle E. Cairns, *Christianity Through the Centuries*.

김기달 역, 『서양기독교사』 (서울 : 보이스사, 1986), 426쪽.

10) Justo L. Gonzalez,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Vol.III*, 이형기, 차중순 역, 『기독교 사상사(III)』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1990), 72쪽. 특히 루터는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유대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며,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94쪽)라고 선언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론적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들’ 모세와 구약에서 찾으며, 이는 기독교인들에게도 큰 중요성을 갖게 한다고 해석하였다. 74-75쪽.

11)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46쪽.

12) 개혁자들이 말하는 칭의와 성화의 과정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에 의한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는 분명하나 고린도교회를 행한 바울의 지적처럼 ‘육에 속한 사람’(고전 2:14)은 아날 지라도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고전 3:1-3)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신령한 그리스도인(성화)이 되어 가는 과정은 다음 그림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정길자, 『명목상 그리스도인관계자훈련』 (서울 : 도서출판 가나, 2010), 116쪽.

례와 성찬이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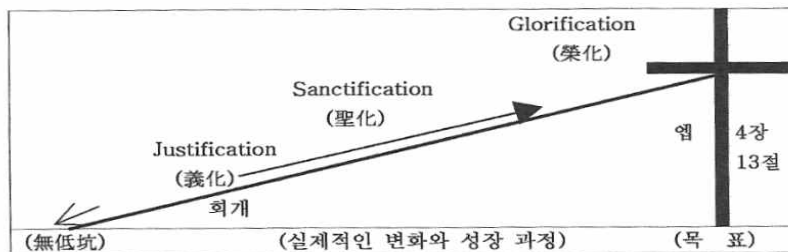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성화되어야 한다. 즉 사랑을 실천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율법의 요구와 고발, 저주와 죽음에서 자유를 얻고, 죄와 용서를 통하여 자유를 얻은 기독교인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¹⁴⁾ 흔히 루터가 말하는 ‘만인 제사장’은 신자들의 보편성인 사제성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루터의 견해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그의 교회론에 나오는 ‘만인을 위한 만인의 제사장직’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루터는 제사장직의 책임과 영예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포한다. 곤잘레스(Justo L. Gonzalez)는 「기독교인의 자유」라는 루터의 글을 인용하며 루터의 ‘만인제사장’에 대한 주장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이 사상은 단순하게 모든 기독교인이 자신에 대한 제사장이라는 의미로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상이 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모든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에 대한 제사장이라는 뜻이며,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고 서로서로 신앙적인 사실을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¹⁵⁾

결국 이론적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개혁은 교회가 목회적인 차원에서 실천하여야 할 확실하고도 분명한 소임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첫째, ‘오직 말씀’에 근거한 복음적 해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체적인 응답과 함께 영적 성장을 추구하여야 한다. 둘째 ‘오직 믿음’만으로 가능한 은혜에 대한 수동적 반응으로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야 한다. 셋째, 만인을 위한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개개인으로서의 성도는 다른 사람, 즉 세상을 향한 제사장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목회 적용 : 남대문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회 안팎의 구체적인 사역에 대해서는 ‘한국교회와 성장’이라는 입장에서 학술대회나 학회, 각종 선교대회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 거론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분석을 위하여 사도행전 2:41-47을 근거로도 소개되었던 내용이다.¹⁶⁾



13)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7장 제1항.

14)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47쪽.

15) Justo L. Gonzalez,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Vol.III, 89-90 쪽.

16) 에딘버러 100주년기념 2010한국대회논문집⑦, 『한국선교와 신학교육』 (서울 : 한국연합선교회, 2011),

첫째, **하나님을 향한 사역(Reaching Up)** :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 쓰니라”(행 2:42).

둘째, **교회 안을 향한 차원(Reaching Together)** :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행 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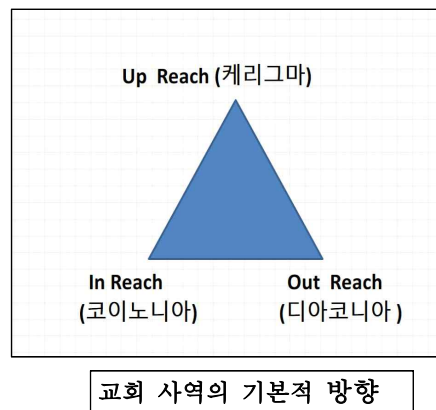
셋째, **교회 밖을 향한 차원(Reaching Out)** :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행 2:47)

미래학자들도 동일한 주제로 이 사실을 강조하며 이것을 도식화하여 교회 사역의 세 방향을 그림 <교회 사역의 기본적 방향>과 같이 ‘up reach’(케리그마), ‘in reach’(코이노니아), ‘out reach’(디아코니아)로 표현하였다.¹⁷⁾

필자는 이미 이와 같은 교회성장학에서 말하는 이론적인 예루살렘교회의 성장모델을 구체적인 교회의 표어로 제시하였다.

이는 일찍부터 맥가브란과 코스타스의 논의에서 교회의 수적성장은 결과적인 것이므로 이 궁극적인 성장 (Growing more)을 큰 주제인 “누구나 그리워서 찾아오는 교회”라 정하였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표어로 세 가지의 실천 과제를 제시하였다.



“누구나 그리워서 찾아오는 교회”

1. 말씀이 그리워서 찾아오는 교회(Growing Up),
2. 사랑이 그리워서 찾아오는 교회(Growing Together),
3. 사명이 그리워서 찾아오는 교회(Growing Out)

실천 과제로서 세 가지의 표어를 교회 사역의 기본적인 방향(up reach, in reach, out reach)과 일치 시켰다.¹⁸⁾ 이것이 중요한 목회의 실천 방향이지만 이 내용들이 앞서 언급한 종교개혁의 정신들과 동일한 구조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오직 성경(*sola Scriptura*)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성경은 영적인 양식이다.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할 말씀의 근거

124-28쪽, 실제적인 교회사역의 방향은 한국복음주의신학회와 한국선교신학회 제3차 공동학술대회자료집 (2011. 6. 11. 온양제일교회), 32-36쪽 참고.

17) 제시된 <교회 사역의 기본적 방향>은 이성희, PCK 교단 <에큐메니칼 정책세미나>(2016, 2. 18.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소강당)의 주제 강연 중 제시된 것으로서 선교 사업을 위한 방향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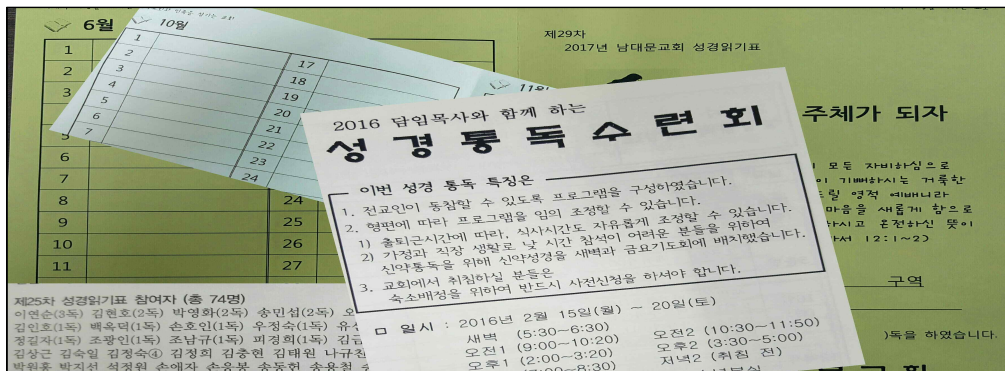
18) 참고적으로 일관성을 갖기 위하여 매년마다 제시된 교회의 연도별 표어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15년 처음 신앙을 회복하자 1.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자 2. 사랑과 기쁨으로 3. 민족을 가슴에 품고
 2016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 말씀과 더 가까이 2. 교회와 더 가까이 3. 이웃과 더 가까이
 2017년 개혁 변화의 주체가 되자. 1. 다시 거룩한 말씀으로 2. 다시 거룩한 교회로 3. 다시 거룩한 삶으로

도 ‘오직 성경’일 뿐이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함이 없이 성숙한 교회를 기대할 수 없다. 성숙한 교회는 성숙한 성도들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필자가 시무하는 남대문교회의 일차적인 목회 지침은 ‘성경 말씀과의 친숙함’이다. 부임과 동시에 시작된 ‘일일성경 읽기운동’은 2010년 4월에 시작하여 2017년 6월에 제29차 운동이 마감되며, 7월부터 제30차 ‘일일성경읽기운동’이 진행된다. 지난 8년 동안 한 해도, 한 달도 거른 적이 없다. ① ‘지속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경통독사경회 ‘신구약일독학교’ ‘성경 일만독 대행진’ 등 각종 성경 세미나와 성경중심의 강해 설교도 중요하지만 이미 교회개혁의 목회적 핵심은 ②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한다.¹⁹⁾ 지적인 것이나 정서적인 것에 머무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모든 설교의 성경강해의 흐름도 보면 지정의(知情意)의 요소가 분명하다. 우연에 의한 행동 변화도 가끔 있을 수 있지만 개혁이나 갱신을 전제로 하는 교육이라면 반드시 ③ ‘의도적’이어야 한다. 교육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도적, 계획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개혁 교회의 목회자는 실제적인 의도를 가진 설교와 교육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복음의 선포는 ‘인간 구원’이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그래서 본 교회에서 발간된 성경공부의 교재들도 ‘지정의’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통한 토의와 묵상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²⁰⁾

둘째, 오직 믿음(*sola Fide*)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의 지체들이나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회는 위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 교계제도는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체제의 기본이다.”²¹⁾라고 규정한 천주교회와는 달리 개혁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강조된다. ‘오직 믿음’으로 천국의 백성이 된 성도들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길 때에도 믿음으로 섬겨야 한다. “한 때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였으나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다(고전 2:14). 물론 세미한 바람소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과의 소통과 세상의 소리도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먼저 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다보면 세상과는 무관한, 때로는 세상과 담을 쌓거나 버려야 할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럴 때에는 세상을 잃고, 형제를 버리고, 물질적인 손해가 있어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세상도 잃고

19) 단순하면서도 쉽게 기록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제시되 필요한 자료들도 제공해 주어야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하는 인원수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이어야 한다.



20) 구체적인 자료로 교회에서 자체 제작하는 대부분의 교재나 구역공과, 대림절 사순절 묵상자료집의 구성이 대부분 ‘알게 하고(Knowing)’ ‘깨닫게 하며(Feeling)’ ‘~을 하게 하는(Doing)’ 형식으로 되어 있다.

21) 가톨릭 신자생활 안내서, 『생활교리』(대구: 대진출판인쇄사, 1993), 342-43쪽.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설령 그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다보면 세상적인 것은 다 잃을 수도 있다고 해도 2천년의 기독교는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순교적인 삶을 통하여 교회를 지켜왔다. 순교적인 신앙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잃어버린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사람은 약하다. 연약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의지함으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최근 들어 좀 더 친근하면서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되 신실한 믿음으로 묶어진 ② ‘소그룹 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심지어 소그룹 중심의 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꿈꾸고 있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남대문교회도 소그룹운동이 필요한 교회이다. 20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여전도회도 있고, 100년 이상 이어져오는 봉사 그룹도 있다. 예비신 선교사에 의하여 시작된 장년 성경공부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가족과 가문 중심의 공동체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형성된 소그룹이 존재하는 교회가 남대문교회이다. 제도적이고 인위적인 조직이 아니라 가족 중심의 소그룹이 선교기관으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선교 운동을 시도하고 있다.²²⁾ 획기적인 일은 성도들의 ③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이다. 은퇴한 노인들의 섬김을 통하여 운영되어지고 있는 장년교회학교와 지역이 아니라 멀리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분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교회학교, 계속 늘어나는 영유아부 어린이들로 인하여 계속적인 시설을 확충해 나가야만 하는 현상은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교회의 내적 성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일예(一例)가 아닌가 생각한다.

셋째, ‘만인제사장’의 신분도 오직 은혜(*sola Gratia*)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들 보다 더 고상한(noble) 직분이 있을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고결한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주어질 책임이 있다(*nolesse oblige*). 이것은 개혁교회가 가진 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장점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외적인 활동을 통한 사회봉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말이다. “만인제사장의 자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있는 현장을 뜻한다. 궁극적으로 모든 성도와 부모들이 다 교사가 되어야 하고 모든 직장인과 평신도들이 다 환경과 노동과 통일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²³⁾ 모든 제사장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해 나가는 운동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참 이웃이 되는” 교회의 구체적인 사역이 바로 성도들의 ‘Mission’(使命)이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성도나 지역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교회라면 더 이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세상의 변화와 개혁을 이끄는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교회는 계획적인 안내가 필수적이다.²⁴⁾ 그래서 날마다 ① ‘자기반성과 점

22) 남대문교회의 ‘보내는 선교사 운동’은 주로 본 교회 출신의 선교사역자들과 교단 출신의 선교사들과 협력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One-Ten-Ten 선교(한 명의 선교사를 열 명의 성도가 10구좌로 후원하는 선교)는 대표적 가족 내지는 가정별 소그룹이다. 인도네시아(신방현), 케냐(김성영), 라오스(권야곱)에 파송한 선교 중에서도 특이한 것은 인도네시아의 ‘찌드라가든교회’와 공동으로 케냐에 김성영선교사 가정을 파송한 것은 인도네시아, 케냐, 한국이라는 세 나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한 에큐메니칼 선교라는 큰 의의가 있다.

23) 『한국기독교공보』(제3091호, 2017. 5. 20), 22면에 올린 필자의 글은 ‘한국선교신학회’가 “헬조선에 응답하기 위한 기독교 개혁의 과제”라는 주제로 가진 2017년 제2차 학술대회의 결과를 보고 쓴 응답이었다.

24) 개혁 운동의 실천은 생활 현장의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기본적인 개혁과 교회 갱신 운동이라는 관점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위한 자기 점검표>를 기록하게 함으로, 변화된 삶을 위한 일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에 따라 거부감을 표시하는 성도들도 없지 않아서 지금은 <생활 속의 감사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검'을 통하여 작은 것으로부터 개혁과 변화를 위한 운동에 참여케 하였다. 남대문교회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인 중구에 자리에 잡고 있다. 서울시 중구 관내의 교회는 중구지역을 맡고 있는 관공서인 중구청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구청과 관내 모든 교회는 이미 “교구협의회”라는 조직을 통하여 교회가 연합하여 지역을 섬기고 있으며, 교회와 동사사무소와의 협의체인 ‘교동협의회’나 교회와 경찰서와의 협력을 위한 ‘교경협의회’ 등은 이미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²⁵⁾ 단순한 구호나 마음에서 끝나거나 일시적인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와 같은 ② ‘지역과의 협력 체제(system)’가 중요하다. 안타까운 것은 이를 시행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이 있으나 교회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의 성공적인 사례가 드러나는 곳이 있으나 아직은 지극히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국에서 보기 드물게 하나의 구청 관내에는 두 개의 경찰서가 있는 지역이 서울시 중구청 관내이다. 달리 남대문교회는 남대문경찰서와 깊은 관계를 가진다. 적은 숫자의 교회가 참여하고 있어서 크고 작은 부담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교회마다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지역 내의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취약계층인 쪽방 거주자나 노숙자에 이르기까지 웬만한 사회봉사는 이 세 개의 협의회를 통하여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경제적으로 매우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교회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도 많지만 성도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줄 뿐만 아니라 ③ ‘격려와 칭찬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죄 없는 성도들이 주눅이 들고 기가 죽어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를 교회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국민들이 좌왕우왕한다고 해서 교회까지도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여주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교단이나 기독교 연합체가 정치적인 성명이나 편파적인 자기 색깔을 드러내는 것은 결국 다양한 성향을 가진 성도들의 기를 꺾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칫 세상적인 승리감이나 패배감에 사로 잡혀 교회 다니는 일을 우습게보거나 부끄럽게 여기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누구나 의지하고 싶어 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세상에서도 당당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이 분명할 때에 직장에서도 사회 각 분야에서도 교회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들을 자신 있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⁶⁾ 남대문교회가 132년의 역사를 강조하며 ‘어머니 교회’, ‘못자리 교회’를 강조하는 것도 자랑이나 과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통한 긍지를 갖게 함으로 이에 따르는 사명을 강조하기 위한 이유 때문이다.

2015년 남대문교회 빛과 소금의 삶을 위한 자기 점검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하루종일 화내지 않음 : 50점 단 한 번이라도 화를 내면 : 10점
 타인에게 친절 베풀기 : 10점 타인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함 : 10점
 타인을 위한 기도 1회 : 10점 타인에게 복음을 전함 : 20점
 타인에게 칭찬을 해줌 : 10점 남을 비방하거나 욕하면 : -50점
 사랑의 방언 (고미안감사) : 50점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세이레 특별새벽기도회 「주제: 감사실천으로 인생역전」
 * 일정 : 3월 14일(월) ~ 4월 2일(토) 오전 5:30 (중예배실)

	3/14(월)	3/15(화)	3/16(수)	3/17(목)
특송담당	장로	안수집사	청장년교사	권사
	3/21(월)	3/22(화)	3/23(수)	3/24(목)
	교역자	시온	호산나	백합
	3/28(월)	3/29(화)	3/30(수)	3/31(목)
	그리심	드보라	제1,2,3남	제1,2,3여

- 25) 서울 중구청 관내의 교구, 교동, 교경협의회와 같이 교회간의 연합과 관공서와의 협력 사례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아직 서울 중구청 관내만큼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협의회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6) 1978년 6월 17일 창립된 남대문교회의 직장인 예배는 매주 수요일 정오에 드려지고 있으며, 이 직장인 선 교회가 현재 여덟 개의 나라에 여덟 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역할의 일례가 될 것이다.

일반화를 위한 방향 : 일관성과 지속성

우연히 듣게 된 이야기이지만 “19세기의 이론을 배운 20세기의 목사와 교사들이 21세기의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불평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항변이라고 보지만 이것은 단순히 기성세대와 젊은이들 간의 세대 차이 이상으로 심각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시대적인 변화나 흐름이 있다고 할지라도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이 개혁교회 고백이다. 말씀으로, 다시 거룩한 말씀으로, 오래되고 낡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오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시대적인 변화와 무관하다. 21세기가 아니라 31세기, 41세기가 되어도 개혁교회의 정체성은 성경과 믿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이다. 이러한 정신이 가장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지는 현장이 교회이며, 실제적으로 적용하며 실천해야 할 사람들이 목회자들이다. 그러므로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가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의 자기 위치 점검이다. 물론 변질되는 일도 없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성공, 실패를 따지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무엇보다 목회자는 성경을 가르치되, 선포된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평신도들을 지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의 선포는 ① 언제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회중의 숫자와 관계없이, 지역이나 시대의 구별이 없이 교회는 끊임 없이 새로워져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변화와 갱신을 빌미로 원칙까지도 흔들어버리면 진정한 개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애국충군’하는 일로부터 시작된 한국교회는 개화 운동은 물론 조국의 광복과 미래를 위하여 수많은 일들을 감당해 왔다. 민족 분단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민족을 섬기며 복음 전파하는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과 정치적인 민주화를 위하여 헌신한 교회들이다. 물론 교회의 일치되지 못한 모습이나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스스로 비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업신여기면 그 이후에 타인들도 그를 업신여긴다.”(人必自侮 以後 人侮也)는 옛 어른들의 가르침처럼 자신의 장점을 찾아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목회 현장이 되어야 한다. 교회를 폄훼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2천년의 기독교역사가 바로 핍박과 고난의 길이였다. 따지고 보면 아무리 미자립 교회이고, 힘이 없는 농어촌교회라고 해도 다음 세대를 위한 방과 후 학교나 어른들을 모시는 경노잔치 등 대사회적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써왔고, 작은 일이라고 세상을 위하여 헌신하며 몸부림쳐 온 한국교회이다. 종교의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교회를 향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두려운 것은 이러한 불평과 저항이 있다고 하여 개혁의 고삐를 늦춘다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배타성을 지적한다고 해도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복음이시며 가장 분명한 개혁교회의 정체성이다.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하고, 부도덕한 성윤리와 비상식적인 악법의 제정을 막아야 한다는 것은 교회가 끝까지 지켜나가야 할 일들이 분명하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로서의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가 ② 지속적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개혁과 갱신이라는 이 과제는 중단 없이 실천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실체는 성도들 개개인이다. 평신도들은 교회의 구성원이기도 하지만 결국 가정과 직장과 세상으로 파송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예배의 장소가 교회로 국한되지 아니하고 직장과 가정으로 확산되는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이 이들을 낙심하게 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에 부합되는 능력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 힘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로부터 상처와 고통만 가득한 채로 세상으로 파송을 받고 있다. 신학이 교회를 위한 학문이듯이, 목회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만인 제사장들을 위하여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며 새롭게 하는 신앙의 산실(産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하여 ③ 의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성도로서 세상에서도 긍지와 보람을 갖게 하므로 개혁과 갱신 운동에 대한 실천적인 의지를 갖게 하기 위한 운동이 일어나야만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종교개혁의 정신을 고찰하고, 그 정신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들을 소개하였다. 진정한 개혁과 갱신의 방향은 결코 알고 깨닫는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실제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목회하는 이들 중에서 종교 개혁의 기본 정신이나 사상을 부정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이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 정말 사변적인 것에 머물게 될 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모든 교회가 개혁과 갱신운동의 주체가 되고, 모든 성도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만이 성경이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는 ‘다시 거룩한 교회로’, 그리고 성도들은 다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가톨릭 신자생활 안내서. 『생활교리』. 대구 : 대건출판인쇄사. 1993.
- 서정운 외. 『신학함의 첫걸음』. 서울 : 예영커뮤니케이션. 2002.
- 손윤탁. 『선교교육과 성장목회』.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11.
- 에딘버러100주년기념 2010한국대회논문집⑦. 『한국선교와 신학교육』. 서울 : 한국연합선교회. 2011.
-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서울 :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88.
- 정길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과 제자 훈련』. 서울 : 도서출판 가나. 2010.
- Cairns, Earle E. *Christianity Through the Centuries*.
김기달 역. 『서양기독교사』. 서울 : 보이스사. 1986.
- Gonzalez, Justo L.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Vol.III.
이형기, 차종순 역. 『기독교 사상사(III)』.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1990.
- 국제로잔위원회 보고서(Ed. Heather wright). *They Call Themselves Chritian*.
London : Christian Research & The Lausanne Committee for World Evangelization. 1999.
- 한국복음부선교학회와 한국선교신학회 공동주최. 「제3차 공동학술대회」(미간행 보고서).
온양제일교회, 2011. 6. 11.